

함평 레미콘 공장 우후죽순... 주민 거센 반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최근 함평 군내에 4개의 레미콘 공장들이 '우후죽순' 추진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함평군과 주민들에 의하면 기존 2개의 레미콘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로 함평읍과 월야면 등지에 4개 레미콘 공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함평읍 수호리 439번지의 5필지(부지면적 3727㎡)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허가가 나온 상태고, 함평읍 수호리 산 68번지(부지면적 4544㎡)는 지난 9월에 신규 허가를 접수한 상태다.

또 A업체가 지난 1월 신청한 달맞이공원 인근 월야면 용월리 지역은 진입로 확보 등 서류보완에 따라 보류된 상태로 최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월야면 영월주유소 부근(부지 6500㎡)에 추진하는

기존 2곳에 4곳 신설 준비

정부 규제 완화 맞물려

郡 "법적 하자 없으면 허가"

주민들 "말뿐인 청정 함평"

레미콘 공장의 경우 업체가 아직 서류 접수를 안 했지만 부지매입과 주민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청정지역을 자부하는 함평에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레미콘 공장들이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우후죽순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법적인 문제와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군은 당초 함평읍 수호리에 허가를 신청한 B 레미콘 공장에 불허했다가 업체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지난해 10월 허가를 내줬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주민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공장들이 잇따라 들어서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함평군이 연간 관급으로 레미콘 조합을 통해 조달구매 하는 레미콘 물량이 매년 10만 루베에 불과해 계속적인 공장 설립은 건설경기 침체와 물량감소 등 업체들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레미콘 업체들은 레미콘 조합을 통해 연간 관급물량을 절반씩 똑같이 배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함평 관내 연간 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감소 추세라 무분별한 공장설립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주민 박모(74·월야면)씨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생활터전이 있는 곳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비산먼지 발생과 대형 관정 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은 물론이고 대형차량의 빈번한 운행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오염, 농작물 피해 등이 불 보듯 뻔하다"며 "군의회나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수길 함평군의회 의장은 "최근 함평읍과 월야면에 레미콘 공장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현장을 답사한 결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태"라며 "군의회에서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무과에 법적인 검토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



'하트해변'으로 불리는 신안군 비금도 하늘섬 해수욕장 일대를 둘러보고 있는 중국 여행사 관계자들.

신안군 中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팸투어

21명 참여 슬로시티·흑산도·홍도 일원 둘러봐

신안군은 최근 2박3일간 중국 인바운드 여행사 대표를 초청해 팸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서울 소재 중국인 인바운드 전담여행사 157개 중 규모가 크고 건설한 업체 관계자 17명과 신화통신, CCTV 관계자 등 총 21명이 참여해 신안지역 대표 관광지인 '슬로시티' 증도와 자은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지역인 비금도, 흑산도, 홍도 일원을 둘러봤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신안지역이 앞으로 중국의 부유층을 겨냥한 최고의 휴양지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무안공항을 이용한 증도, 자은, 비금도를 연계하는 코스와 흑산, 홍도와 제주도를 연계하는 상품 개발, 중국 매체를 통한 광고 홍보,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촬영, 한국·중국 사진작가 사진촬영 대회, 웨딩촬영 코스 개발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를 계기로 신안과 제주도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외국인 관광객내문 정비 등 팸투어 관계자들이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사전준비를 완료하겠다"며 "중국인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향후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성진기자 ssllee@

무안군 농산어촌 개발 사업비 95억 확보

공모사업 6건 선정

무안군이 2년 연속 100억원대의 농·산어촌개발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안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에서 운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등 6건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같은 공모사업에서 해제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등 3건 96억2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 확정된 사업은 ▲운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54억9000만원) ▲현경면 울통 해양스포츠 체험마을조성(20억원) ▲일로읍 용산 백련지 소독하(4억8000만원) ▲해제면 마화골 마을단위 종합정비(10억원) ▲해제면 창산 황

금 박취 마을조성(5억원) ▲시·군 역량 강화사업(1억원) 등 6건이다. 군은 사업별 1~4년간에 걸쳐 추진하게 된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해 전국 자치단체와 경쟁하여 확정되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사업이다. 사업은 크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창조적 마을 만들기, 시·군 역량강화사업으로 나뉘며, 매년 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해 4월까지 신규 사업성 평가를 통해 9월 중 예산이 확정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추진이 중요하다"며 "2016년도 공모 사업도 차질없이 준비해 농촌 마을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영광 모시잇 송편 활황

육당 동부 생력재배 평가회

국산 동부를 이용한 모시잇송편 명품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영광군은 최근 영광읍 송림리에 있는 동부 생력재배기술 실증포장에서 생력재배를 위한 현장평가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모시잇송편 가공업체와 농가,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품종 '육당 동부'(전남 2호) 특성 관찰, 콤바인 기계수확 가능성, 국산동부로부터 만든 모시잇송편 시식 순으로 진행됐다.

영광 모시잇송편 산업은 연간 25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관련 산업 파급효과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자산업이다.

모시잇 송편의 주요 재료 중 하나인 동부의 경우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영광 모시잇송편 명품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재래동부는 덩굴성이어서 열매가 익을 때마다 직접 손으로 수확해야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한꺼번에 익지 않아 기계수확도 어려웠다.

하지만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새롭게 개발한 '육당동부'(전남2호) 신품종은 콤바인 직립으로 일시에 기계 수확(콤바인 이용)이 가능하고, 수확량 또한 일반 콩과 비슷해 농가 경영비 절감 및 국산동부 확대 재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공업체 관계자들은 국산 동부를 이용한 모시잇송편 시식회에서 "수입산보다 구수한 향이 나고 식감이 좋다"고 평가했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지난 21일 함평군 신광면 양서·파츨류 생태공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알비노 미안마 비단뱀을 만져보고 있다. 아래는 양서·파츨류 생태공원. <함평군 제공>

함평 전국 첫 양서·파츨류 생태공원 문 열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서·파츨류 생태공원이 함평에 문을 열었다. 함평군은 지난 21일 신광면 함평자연생태공원 입구에 위치한 양서·파츨류 생태공원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생태공원은 부지 8만5000㎡, 연면적 2673㎡(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능구렁이와 까치살모사, 아나콘다, 킹코브라 등 총 89종 666마리의 양서·파츨류를 전시하고 있다. 군은 이곳을 초·중·고교생의 수학여행코스과 체험학습장으로 활성화하고, 다른 동물원과 교환 전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황운학기자 hwang@kwangju.co.kr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중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농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원원, 선산 적합, 매 30억원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원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동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원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월계동 4층 17억(보2.2억 월85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도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옥,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4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상가 신축 용지
- 창고/공장 용지
- 전원주택용지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새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급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공장부지 “땅” 급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6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